

6월28일(월)/로마서1~7

제목: 우리는 복음을 위한 생산 수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문장에서 발신인을 밝히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이라고 하면서 발신자는 ‘자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두 가지로 소개 하였다. 하나는 종이요 하나는 사도이다(1절).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자기가 노예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복음’ (1절)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의 마음 속에는 정열이 불탔다. 그래서 그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를 차례로 써야하는데 그 차례를 잊어버리고 도중에 “이 복음은” (2절)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2~4절). 그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편지 형식마저도 잊어버릴 만큼 복음에 미쳐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노예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요즘은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노예에게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노예는 동물이나 기계취급을 당하는 생산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6절)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위한 생산 수단으로 살고 있는가? 도리어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생산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6월29일(화)/로마서1:8~17 (1)

제목: 피차 유익이 목적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 로마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심정을 담았다. 먼저 그는 로마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전파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다(8절). 그리고 자기가 로마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9절). 그리고 그는 멀리서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직접 가서 만나고 싶다는 심정을 전했다(10절).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주고 그리고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11~12절).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는 말은 자기도 로마교회를 보고 위로와 힘을 얻고 로마교회도 자기를 보고 신앙의 견고함을 얻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가르치면서 배우겠다는 뜻이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도 유익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과 승리감도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들도 유익하지만 우리도 더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교회도 유익을 얻지만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보상이 찾아온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은 항상 피차에 유익한 것이다.

6월30일(수)/로마서1:8~17 (2)

제목: 빛 값을 의무감이 있습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복음의 빛을 쬔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 빛을 값기 원한다고 말했다(14~15절). 그는 여기서 ‘빛을 쬔다’ 고 했지 ‘빛을 값았다’ 고도 하지 않았고 ‘빛을 다 값겠다’ 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빛진 자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였다. 마치 복음의 빛을 값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야 할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의무를 강하게 느꼈다.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의무감으로만 살았다. 빛 값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서는 그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값으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고 권리만 주장하지 않는가? “왜 돈 안 주십니까? 왜 합격 안 시켜주십니까? 왜 병 안 고쳐 주십니까? ‘우리는 혹시 권리는 많이 주장하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진 빛이다. 이 복음의 빛을 값지 않고 산다면 늘 편할 수 없어야 한다. 복음의 빛을 값을 의무감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는 파렴치범일 것이다.

7월1일(목)/로마서1:8~17 (3)

제목: 복음의 두 가지 속성

복음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 (16절). 사람이 복음을 받아드리면 ‘능력’을 가지게 된다. 어떤 능력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게 되는 능력, 절망하다가도 밝아지는 능력, 죽다가도 살아남는 능력,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다. 복음 안에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두 번째 복음 안에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17절). 복음 안에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속성이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고 책망하자면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믿은 것 하나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창15:6). 실지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된다. 복음은 관념이 아닌 능력 그 자체이다. 또 복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복음을 받아드리면 이보다 더 수지맞는 일이 있겠는가?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은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좋은 복음을 한시라도 빨리 받아드린다.

7월2일(금)/로마서1:18~23

제목: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한다. 첫 번째 대상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대해서이다(18절). 이것은 진리를 막는 불 경건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적극적인 악, 하나님의 사업을 가로막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두 번째는 인류 전체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원리적 입장에서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 한 것이 모든 만물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버렸다.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다(20절). 세 번째 대상자는 하나님을 알되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이다(21~23절). 이것은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킨다.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스스로 버렸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람과 동물 상(像)으로 대치시켜버렸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크리스찬은 특히 첫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